



지난 8일 밤 (한국시간) 레바논 시돈의 시립경기장에서 열린 2018년 러시아 월드컵 아시아지역 2차 예선 대한민국 대 레바논의 경기. 한국의 권창훈이 레바논 수비수 사이로 오른발로 골을 성공시키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의 메시’ 권창훈 연속 골…레바논 원정 22년 무승 됐다

‘슈틸리케 에이스’ 급부상

K리그 활약 공격형 MF

동아시안컵서 첫 태극마크

과감한 드리블로 공격 활로

라오스전 2골 ‘스타’ 발돋움

4경기 선발 출전 ‘무한신뢰’

‘수원의 젊은 푸른 날개’ 권창훈(21·수원 삼성)이 레바논전에서 다시 한 번 뽐낼 날았다.

권창훈은 9일 레바논 시돈의 시립경기장에서 열린 레바논과의 2018 러시아 월드컵 아시아지역 2차 예선 G조 3차전에서 장현수의 골과 상대 수비수의 자책골로 2-0으로 앞선 후반 15분 한국의 승리를 사실상 확정짓는 골을 터뜨렸다.

그는 기성용(스완지시티)의 전진 패스를 페널티아크 안에서 받은 뒤 수비수 3명을 앞에 두고 과감한 오른발 터닝 슈팅을 날렸다. 골키퍼가 몸을 날렸으나 강하고 낮게 깔린 슈팅은 골대 오른쪽 하단에 꽂혔다. 권창훈의 두 경기 연속 골과 함께 한국은 22년 만에 레바논 원정 무승 징크스

를 깼다. 레바논 원정경기에서 승리한 것은 1993년 이후 처음이다.

권창훈의 멈출 줄 모르는 질주다.

지난 8월 열린 2015 동아시안컵에서 국가대표로 데뷔한 권창훈은 박지성의 드리블과 고종수의 왼발을 견제한 재능으로 지난 라오스전에서 홀로 2골을 책임지며 ‘전국구 스타’로 발돋움하더니 이날 절정의 골감각을 또 한번 과시했다. 최근 두 경기만 놓고 보면 슈틸리케호의 에이스로 거론되는 기성용, 손흥민(레버쿠젠)에 뒤지지 않는 활약이다.

울리 슈틸리케 감독도 권창훈을 선발한 뒤 매 경기 기용할 정도로 신뢰를 보내고 있다. 권창훈은 이날까지 5경기 가운데 4경기를 선발로 소화했다.

러시아 월드컵 2차 예선

한국 3-0 승…3연승

골득실 앞선 G조 선두

내달 8일 쿠웨이트전

권창훈은 보통 중앙 미드필더로 분류되지만 공격적인 성향이 강한 선수다. 패스보다는 과감한 드리블로 공격의 활로를 뚫고 감독이 원하는 전술이 몸에 딱 맞는데다 선수 본인은 욕심까지 내고 있다. 권창훈의 득점 행진이 앞으로 기대되는 이유다.

여기에 슈팅도 점차 물이 오르고 있다. K리그 3년차를 맞은 권창훈은 올시즌 수원의 주전으로 발돋움하며 7골을 쏟아냈

다.

슈틸리케 감독은 라오스전과 레바논전에서 그를 ‘패스마스터’인 기성용과 짝지어 세웠다. 밀집수비를 깨야 하는 2차 예선에서 두 선수의 중원 기용은 다양한 공격 전개를 가능하게 했다. 다른 유형의 두 선수가 서로의 파괴력을 배가시키며 대표팀의 연속 행진을 이끌어나가고 있다.

권창훈은 이날 골을 넣은 뒤에도 만족하지 않겠다는 듯 날카로운 중거리 슈팅을 두차례나 더 날렸다. 기량은 상승세를 타고 감독이 원하는 전술이 몸에 딱 맞는데다 선수 본인은 욕심까지 내고 있다. 권창훈의 득점 행진이 앞으로 기대되는 이유다.

권창훈은 경기를 마친 뒤 “레바논 원정

이 어렵다고 들었는데 경험이 많은 형들이 이야기를 많이 해줘 도움이 됐다”며 “팀 전체가 잘해서 이길 수 있었다”고 겸손한 소감을 밝혔다.

그는 또 “오늘도 체력이 떨어졌을 때 실수가 나왔는데 그런 부분을 줄여야 한다”며 “감독님이 믿어주시는 만큼 나도 거기에 보답하기 위해 감사한 마음으로 뛰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승리로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에서 3연승을 기록한 한국은 승점 9점으로 쿠웨이트와 동률이지만, 골득실에서 +13점으로 쿠웨이트에 1점 앞서면서 G조 단독선두에 올랐다.

한국은 다음 달 8일 쿠웨이트에서 4차전을 치른다. /연합뉴스



박인비·리디아 고·루이스 LPGA 에비앙서 불꽃승부

〈세계1위〉

〈2위〉

〈3위〉

1라운드 같은 조 편성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의 올 시즌 마지막 메이저대회인 ‘에비앙 챔피언십’(총상금 325만 달러)에서 세계랭킹 1~3위가 한 조에 편성, ‘빅 매치’가 성사됐다. 9일 공개된 에비앙 챔피언십 1라운드 조편성을 보면, 세계랭킹 1위 박인비(27·KB금융그룹)와 2위인 뉴질랜드 교포 리디아 고(18, 3위 스테이시 루이스(미국)는 나란히 12조에 배치됐다.

이들은 현지시간 10일 오전 8시 40분에 대회장인 프랑스 에비앙-레뱅의 에비앙

마스터스 골프클럽(파71·6천453야드) 10번홀에서 함께 티오프한다.

이 대회에서 최초의 ‘슈퍼 커리어 그랜드 슬램’에 도전하는 박인비는 대회 시작부터 라이벌들을 만났다. 슈퍼 커리어 그랜드 슬램은 여러 시즌에 걸쳐 LPGA 투어의 5개 메이저대회를 석권하는 기록이다.

박인비는 이미 LPGA 투어 4개 메이저 대회의 우승컵을 모두 모아 ‘커리어 그랜드 슬램’을 달성했다. 그가 이 대회에서 마지막 메이저대회 우승컵을 획득하면 명실상부 여자골프 1인자임을 공고히 할 수 있다.

리디아 고는 지난달 캐나다 퍼시픽 여자

오픈에서 시즌 3승째를 수확, 상승세를 타고 있다. 루이스는 올 시즌 2위만 4차례, 3위에도 3차례 올랐으나 아직 우승을 거두지는 못했다.

지난해 한국여자프로골프 회원 신분으로 에비앙 챔피언십 깜짝 우승을 차지한 김효주(20·롯데)는 유소연(25·하나금융그룹), 수잔 페테르센(노르웨이)과 같은 조로 묶였다. 올 시즌 한·미·일 메이저대회를 두루 석권한 전인지(21·하이트진로)는 브리트리 린시킴(미국), 미야자토 아이(일본)와 첫날 함께 경기를 시작한다. /연합뉴스

8월 K리그 ‘최고의 골 세리머니’는?

광주 FC 까시아노 ‘불 임신’ 세리머니 등 투표 시작

광주 FC의 까시아노가 ‘이달의 골 세리머니상’에 도전한다.

K리그 최고의 ‘골 세리머니’를 펼친 선수를 팬투표로 선정해 시상하는 ‘SHILLA STAY 이달의 골 세리머니상’ 8월 투표가 시작됐다.

8월19일 대전과의 홈경기에서 한국에 서의 첫 골을 넣은 광주의 신인 외국인 선수 까시아노는 ‘불 임신’세리머니(사진)를 선보이면서 ▲김승대(포항)의 ‘여기가 스틸야드다’ 세리머니 ▲이종호(전남)의 ‘갓종호 강림’ 세리머니 ▲레오나르도(전북)의 ‘아싸 호랑나~르도’ 세리머니 ▲윤주태(서울)의 ‘스모’ 세리머니와 함께 이달의 골 세리머니상 후보가 됐다.

7월 수상자 이종호는 다시 한번 수상에 도전한다. 이종호는 전남 수문장 김병지의 700출전 대기록을 축하하는 ‘가마군’세리머니를 선보이면서 7월 수상자가 됐다.



후보는 각 구단의 추천을 받아 가려졌으면 투표는 오는 12일 자정까지 온라인 및 모바일을 통해 진행된다. 투표는 포털 사이트 네이버와 K리그 홈페이지 및 K리그 공식 SNS 채널(페이스북, 트위터)을 통해 할 수 있다. /김여울기자 wool@



배상문 프레지던츠컵 출전

프로골퍼 배상문(29)이 오는 10월 인천에서 열리는 골프대항전 프레지던츠컵에서 미국팀과 맞붙는 인터내셔널팀에 ‘깜짝’ 발탁됐다. 배상문은 미국프로골프(PGA) 투어에서 통산 2승을 올렸다. 하지만 세계랭킹을 기준으로 선발되는 10명의 선수 중에 뽑히지 못하고 닉 프라이스 인터내셔널팀 단장의 추천을 받았다.

프라이스 단장은 배상문이 팀내 랭킹에서는 밀리지만 대회가 열리는 책 니콜라우스 골프장에서 두 차례나 우승한 배상문의 경험을 높이 샀다. 배상문은 2013년과 2014년 이 골프장에서 열린 신한동해오픈에서 연속 우승했다. /연합뉴스